

SPORTS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KIA 나성범, 1군 엔트리 말소
종아리 근육 손상...2주 후 재검

KIA타이거즈가 또다시 부상 악재에 휩싸였다.

KIA 관계자는 27일 "나성범이 전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 통증을 느꼈고, 경기 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근육 손상 진단이 나왔다"며 "이에 1군에서 말소했으며 2주 후 재검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성범은 26일 경기 도중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 이우성과 교체됐다. 경기 종료 후에는 구단 지정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근육손상 소견을 받은 나성범의 복귀 일정은 추가 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나성범은 올 시즌 26경기 4홈런 16타점 타율 0.226을 기록했다.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말타타트를 몰아치는 등 반등세를 보였다.

한편 올 시즌 KIA는 초반부터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최근에 서야 복귀했다. 스프링캠프에서 다친 외야수 이창진은 1군에 복귀하지 못했고, 핵심 좌완 불펜 파도규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성범까지 이탈하게 됐고, KIA의 고심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선빈 결승타’ KIA, 선두 LG 잡고 ‘위닝시리즈’

주말 3차전 3-2 승...네일, 6이닝 3탈삼진 2실점 호투
최형우 4회말 우월 솔로포...이범호 감독 통산 100승

KIA타이거즈가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위닝시리즈를 따냈다.

KIA는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LG트윈스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전날 LG에게 8-4 승리를 거뒀던 KIA는 이로써 LG와의 주말 경기를 위닝시리즈로 마무리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김선빈(2루수)-김도영(지명타자)-최형우(좌익수)-오선우(1루수)-변우혁(3루수)-최원준(우익수)-김태군(포수)-김호령(중견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제임스 네일이 나섰다. 총 89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6이닝 4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네일은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후속타자는 유격수 땅볼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KIA는 1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박찬호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김선빈 역시 좌전 2루타를 터뜨렸다. 김도영 삼진 이후에는 최형우가 2루수 쪽 땅볼을 기록, 그 사이 박찬호가 홈에 들어왔다.

2회초 찾아온 위기는 잘 넘겼다. 네일은 상대 문보경 좌전 안타에 이어 오지환에게 볼넷을 내줬다. 무사 1·2루 상황. 상대 박동원에게 병살타를 유도했고, 문성주는 땅볼로 잡아내면서 무실점에 성공했다.

3회초 역시 실점은 없었다. 상대 박해민 땅볼 이후 신민제가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홍창기 땅볼에 이어서는 김현수가 볼넷으로 출루했다. 2사 1·2루에서 네일은 오스틴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KIA는 4회초 또다시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한 뒤 4회말 추가 득점을 올렸다.

선두타자 최형우가 상대 초구 140km 직구를 그대로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네일은 5회초를 세 타자 연속 땅볼로 마무리 지었

지만, 6회초 동점을 허용했다.

두 타자 연속 볼넷 이후 상대 오스틴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문보경은 병살타를 기록했지만,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그 결과 경기는 2-2가 됐다.

KIA는 7회초 네일 대신 전상현을 마운드로 올렸다. 전상현은 뜬공 1개와 땅볼 2개로 이닝을 막았다.

7회말에는 KIA가 다시 앞서나갔다. 선두타자 최원준이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김태군 볼넷 이후에는 김호령이 희생번트에 성공했다. 2사 1·3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김선빈이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뽑아냈다. 이 안타는 결승타가 됐다.

양 팀은 9회까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경기는 3-2 KIA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편 이날 승리로 이범호 감독은 통산 100승 달성에 성공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 파크골프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막...광주·전남 ‘맹활약’

광주, 골프 종합 2위 달성...금 15개로 작년비 대폭 상승

전남, 6개 종목 종합 우승...금 27·은 33·동 68개 획득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전남 목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축전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도 일원 57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4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골프, 검도, 핸드볼, 수중민수영, 배드민턴, 육상 등 41개 정식종목으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전남에서 열린 3번째 전국 규모 메이저대회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화합을 다지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지 전남은 41개 종목에 165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회 결과 전남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67개 등 총 1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금 14, 은 12, 동 13)보다 88개 증가한 것으로, 전남 생활체육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단체 성적도 두드러졌다.

전남은 배구, 배드민턴, 요트, 축구, 파크골프, 핸드볼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검도, 씨름 종목에서는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당구, 소프트테니스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또 그라운드골프 단체전(74세 이하)과 배구 남자일반부에서는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전남 생활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개인 부문 역시 뛰어난 활약이 이어졌다. 육상 트랙종목에서 오은숙씨는 49세 이하부 100m(14초70)와 400m(1분09초03)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성봉(전남도체육회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오이순 부부는 각각 육상 포환던지기 79세 이하부, 69세 이하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봉씨는 지난해 은메달의 아쉬움을 달렸고, 오이순씨는 대회 2연패(2024년~2025년)를 차지했다.

전남체육회 이사인 오만평씨도 59세 이하부 포환던지기에서 대회 2연패(2024년~2025년)를 달성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은 물론 스포츠맨십과 화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게이트볼, 축구, 파크골프 등 34개 종목에 792명이 나섰다.

광주는 골프 종합 2위, 율령기와 방상 종목 종합 3위에 입성했다. 축구와 축구 또한 종합 4위에 올라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 당구 74세 이상 케롬프리큐션 단체전을 비롯해 10개 종목에서 1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금메달 4개를 획득한 것과 대비, 무려 11개나 많은 금메달을 수확해 스포츠 도시임을 증명했다. 이로써 광주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6개 등 총 5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전남 시체육회장은 "광주선수단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에 참가해 17개 시도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무사히 귀향하게 돼 선수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시민 누구나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건강 도시 광주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리그 자존심’ 광주FC, ACLE 8강서 탈락

사우디 알힐랄에 0-7 패...상금 140만달러 획득

역대 시·도민 구단 최초 8강 등...굵직한 기록 남겨

‘K리그의 자존심’ 프로축구 광주FC가 알 힐랄을 넘지 못한 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E) 여정을 8강에서 마무리했다.

광주FC는 지난 26일(한국시간) 사우디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2024-2025 ACLE 알힐랄과의 8강전에서 0-7로 완패했다. K리그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ACLE 리그 스테이지를 통과한 광주는 이로써 첫 아시아무대 도전을 8강으로 마쳤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7-3으로 대파하는 등 리그 스테이지를 4승 2무 1패로 순항해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서는 비셀 고베와 1차전 0-2 패배를 2차전 3-2 승리로 뒤집고 8강까지 진출했다.

역대 시·도민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광주는 K리그 역사에 남을 여정을 4강 이후로도 연장하려 했으나 사우디의 맹주 알힐랄의 벽은 너무 높았다. 축구 이적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가 추산한 알힐랄 선수단 가치는 1억8000만유로(2951억원)다. 광주(140억원)의 20배가 넘는다. 광주는 Kick-off 6분 만에 첫 실점을 했다.

상대는 살림 다우사리의 코너킥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헤더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25분 브라질 원어 마우콩이 측면 깊숙한 지역에서 중앙으로 넘겨준 컷백을 마르쿠스 레오나르두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알힐랄이 2-0으로 달아났다.

8분 후에는 광주의 뒷공간을 공략한 알힐랄의 역습이 다우사리의 득점으로 마무리돼 격차가 0-3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후반에도 먼저 골망을 흔든 쪽은 알힐랄이었다. 후반 10분 밀린코비치사비치의 컷백을 스트라이커 미트로비치가 오른발로 차 넣어 4-0을 만들었다. 반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인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이정호 감독은 후반 17분 주세종, 박인혁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최고 수비수로 활약했던 칼리투 클리발리를 중심으로 뭉친 알힐랄의 후방이 좀처럼 뚫리지 않은 가운데 후반 34분에 알힐랄의 다섯 번째 골이 나왔다.

경기 막판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은 알힐랄은 후반 39분 나세르 다우사리, 후반 43분 압둘라 함단의 연속골로 7-0 대승을 완성했다.

한편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140만달러(약 20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이번 대회는 출전하는 모든 팀이 80만달러를 출전료 성격의 상금으로 받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26일(한국시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2024-2025 ACLE 알힐랄과의 경기에서 광주FC 오후성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